

## 세계화란 무엇인가?

(생각과 말)

옛날이야기 한 토막.

‘세계화(世界化)’의 의미가 무엇이나? 세계 속에 대한민국이 화려하게 등단한다는 뜻이나 대한민국이 세계를 주름잡는다는 뜻이나 하는 논쟁이 거론되던 시절이 있었다.

그렇다면 ‘국제화(國際化)’와의 차이점은 또 무엇이나는 논란이 있었거니와, 국제화는 우리의 물건을 세계 각국에 갖다 파는 정도의 개념이고 세계화는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이 된다는 의미라는 현학적(衞學的) 해석이 그 뒤를 따랐다.

웹스터(Webster) 사전에 의하면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는 “다른 국가나 국민들 사이에 존재하는 일, 두 나라 이상이 모인 기구나 모임에 속하거나 관계를 갖는 일”이며 세계화(Globalization)는 “영역이나 정신적 시야, 실용성을 세계적으로 넓게 하는 일”이라는 뜻이다.

어찌 보면 그게 그것 같기도 한 이 두 개의 추상명사는 “세계화란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이 된다는 뜻”이라는 높은 분의 전제로 인하여 판이한 대접을 받게 되었다. 그리하여 후일 ‘국제화’는 ‘세계화’의 근처에 얼씬 조차도 못 하는 이상한 형국이 되어 버렸음을 우리는 기억한다. 이것은 두말 할 것 없이 ‘세계화’라는 용어에 과포화(過飽和)적인 의미를 부여한 때문이다.

그러나 추상적 용어를 이토록 작위적으로 해석하여 과포화적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는 사실은 ‘지식화(知識化: intellectualization)’라는 일종의 방어 기제에 불과하다.

지식화란 어떤 생각에 뒤따르는 정서적 불안정과 충동적 행동을 억누르기 위해 그것을 부딪쳐 경험하는 대신 오로지 생각만 많이 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저것 그럴 듯한 생각들을 나름대로 체계화시켜 가는 동안 그 생각에 뒤따르는 정서(情緒)는 슬쩍 빼 버리는 수법으로 “나만 불안하지 않으면 다 괜찮은 것”이라고 믿어 버리는 편리한 수단이다.

큰일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왜 이런 지엽적이고 말초적인 언어유희(遊戯)에 빠져 있나 하고 한때는 몹시 의아하게 생각하였다. 왜냐하면 이런 일은 신경 정신과의 장(場)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불안하고 자신 없는 사람들은 쓸데없이 말을 많이 하거나 혹은 특정 용어를 혼자만의 의미로 해석하는 경우를 자주 본다.

말은 하는 사람의 인격, 신분, 사상을 은연중 나타낸다. 대개는 신분 상승과 함께 말이 고

급화하고 표준화해 가며, 말과 함께 하는 얼굴의 표정도 ‘속이야 어찌됐건’ 온화한 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정치에 입문한 후 오랜 시간이 흘러 정치적 거물이 된 사람들이나 연예계에서 많은 인기를 누리는 사람들은 시정잡배(市井雜輩)들이나 함직한 말은 결코 사용하지 않으려 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상당한 정도의 의식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아무리 자신의 지위가 높아져 그에 걸 맞는 언행을 하려고 하여도 잘 되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면 알 수 있다. 바로 이런 경우에 ‘지식화’라는 방어 기제가 작동하는 것 같다.

“무언가 보여 주어야 한다”는 절박함이 “무언가 보여주지 못 하고 있다”는 자괴(自愧)의 심정과 만나면 ‘말만으로 라도’ 어떻게 해보겠다는 결론으로 몰아가 버리기 때문이다.

이 때 본인은 자신의 행위를 무리라든가 혹은 어색하다고 생각하지 못한다. 오히려 남이 쉽사리 생각해 내지 못할 ‘기가 막힌’ 착안을 해냈다고 우쭐함마저 느끼게 된다. 그래서 공자가 이르기를 “군자는 행위로써 말하고, 소인배는 혀로써 말 한다”라고 하였다.

사람들은 제각기 자신의 신분에 어울리는 얼굴 표정과 옷매무새, 언어의 구사력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나 신분이 상승해 가면서도 표정과 언어가 뒤따르지 못 하면 매우 어색한 형상이 된다.

때로 ‘함량 미달’의 인물이 높은 지위를 거머쥐면 자신이 잠방이를 입고 검정 고무신을 신고 있다는 걸 망각한 채 ‘지식화(知識化)라는 텍시도’를 걸쳐 버린다.

“나는 안 그런가?” 각자 한 번쯤 생각해 볼 일이다.